

설비와 음악의 앙상블, 그리고 마이웨이

정승일 명예회장



▲ 한국 음악계의 밑거름이 될 (재)세일음악문화재단 설립 기념 음악회가 지난 11월 1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렸다.

정승일 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르네상스맨'이라고 부른다. 설비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재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정승일 명예회장은 대한설비건설협회 제5대 회장이자, 금탑산업훈장 수훈의 주인공이며, 국립합창단 이사장, 매년 연말이면 열리는 솔리스트앙상블 대표이기도 하다.

또 11월 14일에는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가 수상하는 제1회 '산업공학을 빛낸 경영인' 상을 수상했다.

이런 그가 (재)세일음악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난 11월 1일 호암아트홀에서 설립 기념음악회를 개최했다. 성악기를 꿈꾸었던 소년의 못다이룬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정승일 명예회장이 살아왔던 삶과 열정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 음악을 위하여, 아름다운 영혼을 위하여 (재)세일 음악문화재단 설립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1일 토요일, 호암아트홀 밤하늘에는 세일음악문화재단 설립기념 음악회 출연자와 관객의 합창이 울려 퍼졌다.

한국가곡의 부흥을 꿈꾸는 정승일 대한설비건설협회 명예회장(세일이엔에스 회장)이 (재)세일음악문화재단 설립을 기념한 음악회에서 출연자와 관객은 하나되어 ‘가고파’란 가곡도 열창하였다.

공연이 끝나고 정승일 명예회장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너무도 감격스럽다”며 “음악회를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격정적인 소감을 밝혔다. 또 “한국가곡을 많이 사랑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날 음악회가 끝난 후 깊어가는 늦가을의 서정적인 선율과 감동에 젖은 관객들은 정승일 회장과 출연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냈다. 또 각계각층에서 온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축하 인사도 이어졌다.

안형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성악가의 한사람으로서 세일음악문화재단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세일음악문화재단을 통해 앞으로 좋은 가곡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며 온 국민이 가곡을 즐겨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수 국회의원은 “정승일 회장이 설비건설업계에 종사하면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제5대 회장과 금탑산업훈장까지 받은 것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어느 새 음악재단까지 만들어서 많이 놀랐다”면서 “세일음악문화재단이 문화계 및 국가발전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재단의 후원인으로 가입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장명수 전 한국일보 사장도 “지난 2000년 세일장학재단을 만들면서 정승일 회장이 ‘10년 후에는 음악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을 때만 해도 그 꿈이 이뤄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성악가를 향했던 그의 꿈

이 오늘 실현된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재단을 2개나 만들만큼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승일 회장 내외분께 존경과 사랑을 보낸다”고 말했다.



▲공연이 끝난 후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너무도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말하는 정승일 명예회장

■가난 때문에 접어야 했던 성악가의 꿈 대신 한국 음악계를 다지는 밑거름으로!

70년대와 80년대, 라디오에서는 엄정행의 ‘목련화’가 유행가처럼 흘러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너도나도 ‘일송정 푸른 숲은...’의 선구자를 읊조리던 시절에 가곡은 온 국민에게 사랑을 받았었다. 그 시절엔 한국 가곡으로 전국 순회연주를 열고 춘·추계 가곡의 밤 등이 연례행사처럼 개최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중음악의 범람 속에 한국가곡은 설 자리를 잃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각종 콘서트에서 조차 가곡은 아웃사이더로 밀려나 구색 갖추기의 장르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승일 회장은 그동안 누군가가 한국가곡의 참 가치를

발견하고 생활 속에서 함께 듣고 부를 수 있도록 활성화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또 새롭고 아름다운 한국가곡을 보급하기 위해 신인 작곡가를 발굴하고 창작을 지원하는 일도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 터를 닦아놓겠다'고 결심했다.

정승일 회장이 음악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의외로 미국에서였다. 성악을 전공해 미국에서 활동 중이던 큰딸 내외가 민간단체에서 설립한 음악재단 주최로 열린 국제 콩쿠르에 입상한 일이 있었다. 그들의 앙코르 공연을 보기 위해 찾은 미국 공연장에서 정승일 회장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음악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바로 일대일 스폰서 문화 때문이었다.

1등부터 10등까지 수상자 이름과 상금이 적혀있는 리스트를 나눠주고 그 중 마음에 드는 음악가를 선택해 개인이 후원하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보고 정승일 회장은 무릎을 쳤다. 공연을 즐기면서 훌륭한 인재발굴과 양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이른바 맨투맨 지원문화를 보면서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내의 열악한 음악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한 것이었다.

미국의 성악콩쿠르가 젊은 음악도들에게 많은 기회와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정승일 회장은 이러한 시스템을 국내에도 접목, 한국 가곡과 음악 인재 발굴 및 육성에 직접 앞장서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심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기까지는 7년여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 삶이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1·4후퇴 때 월남한,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던 정승



▲정승일 명예회장이 재단설립 기념 음악회를 연다고 했을 때 음악계의 선·후배들이 적극 도와주었다.(공연이 끝난 후 출연자들과 함께)

일 회장은 성악에 재능을 보였음에도, 또 그토록 가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접고 공대로 진학했다. 그러나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KBS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학비도 보태고 음악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

66년 한양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바로 설비건 설업계로 뛰어 들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서울에서 공사따기란 하늘에서 별따기였다. 더구나 경험이 별로 없는 젊은 그에게 쉽게 일을 줄리 만무했다. 지방을 돌아다니며 일을하던 어느 날 너무도 힘들어서 선배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니 "3년을 더 버텨서 10년을 채운 뒤 그 때 그만 뒤도 늦지 않다"는 쓴소리를 들었다.

선배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정승일 회장은 서울로 입성, 다시 사무실을 냈고 사업은 점차 번성하여 올해 38주년을 맞았다.

오늘이 있기까지 그의 가슴 속에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란 말이 늘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이 말을 만난 인연은 깊다.

풋내기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때 무전여행을 떠났던 그가 대천해수욕장에서 만난 김형석 교수님으로부터 친필 사인을 받은 문구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였다.

그 당시 연세대학교에서 철학 강의를 하고 있었던 김형석 교수는 70년대와 80년대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명강의로도 이름을 날리던 철학과 교수였다.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던, 너무도 저명했던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치고는 간단명료하여 그 당시에는 시시하게만 느껴졌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말의 참뜻을 어렵פות이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곤 일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지금은 그에게 조언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는 꼭 이 말을 해준다.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의지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것을 이루는 방법을 찾게 되며,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굳더터기 없는 삶의 진리이다.

■ 연령을 초월, 호기심과 열정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다’는 말은 지나온 그의 인생을 떠올리게 한다. 살면서 어느 것 하나 그의 뜻에 따르지 않았던 길이 있었겠는가.

세일설비사를 설립한 그 뜻에도 남모르는 눈물과 피땀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38주년의 역사를 가진 알찬 회사가 되었으며, 이제는 고락을 같이했던 직원들에게 경영권을 인계하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또 지난 2000년 (재)세일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그의 모교인 배재고등학교와 부인 장승자 여사의 모교인 이화여고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도 그렇다.

설비건설업계에서 그는 ‘대부’로 통한다.

그가 설비건설업을 시작했던 60년대만 해도 설비건설업은 변변한 이름조차 없어서 ‘청부업자’로 불렸다. 공정하게 일을 해주고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해 설움받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늘 주장했던 그였기에, 또 구심점을 모으기 위한 협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했던 그였기에 협회 창립에 열

정을 쏟았다. 그 결과 대한설비건설협회 제5대 회장을 역임했고, 2005년 ‘건설의날’에는 금탑산업훈장 수훈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를 계기로 설비건설업계에 금탑산업훈장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이처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몸소 실천한 그이다.

그를 보면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않은 길’이란 시가 떠오른다.

머언 훗날,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만약 그가 음악계로 갔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도 지금쯤 바리톤 김동규를 길러낸 스승이며, 한국가곡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는 기업 경영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는 할일이 많다. 카메라 렌즈에 세상을 담아내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고, 천문·지리학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였기에 우주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다. 또 중국어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금도 배울 생각이다.

이처럼 호기심과 열정이 많았던 그는 여전히 치열한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있다.

서울 역삼동의 세일빌딩 지하에는 70석 규모의 콘서트홀을 만들고 있다. 아늑한 살롱음악회를 만들 예정으로 12월에 문을 열기 위해 막바지 공사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정승일 명예회장.

새로 단장한 세일빌딩의 콘서트홀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아리아와 가곡의 선율이 설비건설업계의 자긍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음악의 메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